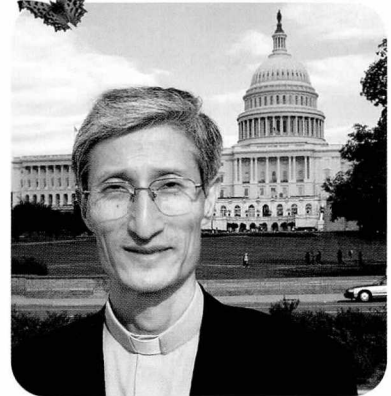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 총무 송열섭 가시미로 신부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죽음을 택할 것인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느님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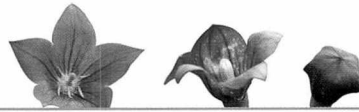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다.”(신명 30,19-20)

어느 날 교리를 배우고 영세한 지 얼마 안 된 교우가 침울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약을 한동안 먹었는데, 얼마 후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는 임신된 아기가 기형일지 모르니 낙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 때 배운 바가 있어 걱정이 되어 온 것인데, “낙태는 안 됩니다.”라는

제 말에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영세한지도 얼마 안 되어 냉담하면 어떻게 하나 줄곧 걱정이 되었지만, 다음 주일 미사에 고맙게도 그 교우가 성당에 왔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던 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미신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옳아. 못나도 우리 자식 잘나도 우리 자식이니 낳읍시다.” 그 뒤에 그 교우는 감사스럽게도 잘 생기고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의식 교육

신자들마저도 쉽게 낙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거센 생명경시풍조에 떠밀



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생명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여야 합니다. 2003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사목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당이나 교회 기관에서 생명 또는 가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5.3%로, '받은 경험이 있다'(44.4%)는 응답보다 높아, 생명·가정 관련 교육을 받은 천주교 신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생명이나 가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신자들 대상으로 교육의 실제 생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98.0%)가 유익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994년에 카이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에집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콘돔을 아느냐고, 인공피임을 아느냐고...” 그들은 콘돔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인공 피임을 압니다. 자연적인 가족계획은 여대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생명 교육은 그저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귀에 딱쟁이 지도록’이란 말이 있듯이 자주 들어 몸에 배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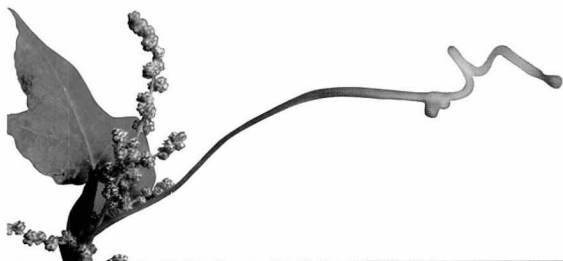
누가 생명운동에 참여해야 할까요?

언제인가 ME부부 모임에 참석한 분에게 낙태문제와

생명운동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단산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3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생명수호 세계대회에서 만난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한지 오래 되었지만, 생명운동에 있어서는 제게 은퇴란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운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1992년 형법개정안 제 135조(낙태허용)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에 나서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전교요, 복음 선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가정의 역할은 결정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경축하며,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생명의 복음 92항 참조).

세계생명수호대회 모임에서 미국의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낙태하려는 것을 말렸지만 결국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속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에는 산부인과 앞에서 묵주를 들고 매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저를 보고 한참을 서 있



“저는 은퇴한지 오래 되었지만,
생명운동에 있어서는 제게 은퇴란 없습니다.”

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낙태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목주를 들고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망설이다가 낙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제야 비로소 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보속이 이루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운동의 연대

개미도 길을 내고 소리를 냅니다. 한 마리의 개미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수많은 개미가 함께 하면 분명 개미도 길을 내고 소리를 냅니다.

2003년 설문에 의하면, 생명운동이 종교적·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인과 천주교 신자 모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일반 88.3%, 신자 94.7%). 다행히 최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가정사목위원회는 ‘생명 31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2월 7일 모자보건법 제정 30주년 전날에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자는 열망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참여란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낙태 악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구하고 생명존중의 사회를 이루려면 바로 ‘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수호를 위한 봉사활동으로써,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은 물질적인 지원으로써, 교육자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가르침으로써, 의료인은 생명존중 의술을 실천함

으로써, 부부들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절제를 통한 자연적인 가족계획법을 실천함으로써 투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이룩될 그 때까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입니다.”**

(신명 30,19-20)

